

In the AI Era, Current Status and Implications of Character Education for University Students: A Case Analysis of Character Education in 2 Universities

Kyoungsuk Ru¹, Jooheui Lee^{2*}

^{1,2}Jungwon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and achievement of character education through the analysis of cases of character education at two universities, and then draw implications for character education that can be applied to university students in the AI era.

[Contents] The subjects of case analysis of character education are University A and University B located in the metropolitan area. Korea's character education policy aims at an individual's moral and social responsibility and holistic growth in accordance with the demands of the times. University A and University B each interpret traditional values in character education in a modern way or provide practice-oriented education, reflecting the core values of the Character Education Promotion Act. Both universities emphasize the importance of character education, and they operate character education courses in-depth as compulsory or elective. However, both universities reveal common limitations in preparing a new character education system that meets the needs of the AI era.

[Conclusions] The future tasks left are to add regular courses and extra-curricula programs that reinforce AI ethics and digital literacy to our university's character curriculum, and to develop the ability for students to think critically and solve problems occurring in the digital society. These improvements will contribute to achieving the goal of fostering ethical leaders with core competencies in the AI era.

[Keywords] AI era, University student personality education, Internalization of personality, Learning for People, Cultivating ethical leaders

* **Corresponding author** Jooheui Lee (Professor, Department of Religious Cultural Heritage, Jungwon University)
E-mail : bog2duru@jwu.ac.kr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s ©Korean Association for Religious Education

AI 시대, 대학생의 인성교육 현황과 시사점: 2개 대학의 인성교육 사례 분석

유경숙¹, 이주희^{2*}

¹중원대학교 교육학과 강사, ²중원대학교 종교문화재학과 교수

요 약

[연구 목적] 본 연구는 2개 대학 인성교육 사례분석을 통해 인성교육의 현황과 성과 등을 살핀 후, AI 시대의 대학생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인성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 내용] 인성교육 사례분석 대상은 수도권에 소재하는 A 대학과 B 대학이다. 우리나라 인성교육 정책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개인의 도덕적·사회적 책임감과 전인적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A 대학과 B 대학의 인성교육은 각각 전통적 가치를 현대적으로 해석하거나 실천 중심의 교육을 제공하며, 「인성교육진흥법」의 핵심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 두 대학 모두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성교육 과목을 필수 또는 선택으로 정하여 심도있게 운영하고 있다. 두 대학 모두 AI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는 새로운 인성교육 체계 마련에는 공통된 한계점을 드러낸다.

[결론] 이 두 대학의 사례는 예측불가능한 AI 시대에 인성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국내 대학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향후 우리 대학의 인성교육 과정에 AI 윤리와 디지털 리터러시를 강화하는 교과목 및 비교과 프로그램을 추가하고, 학생들이 디지털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해야 함을 숙제로 남겨주고 있다. 이러한 개선은 AI 시대의 핵심역량을 갖춘 윤리적 리더 양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주제어] AI 시대 대학생 인성교육, 인성의 내면화, 위인지학, 윤리적 리더양성

I. 서론

최근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 범죄, 교육활동 침해와 같은 사건들은 디지털윤리, 학교폭력 예방, 학교생활 적응 등 인성 덕목을 강화하는 교육의 필요성을 더 요청하고 있다. 글로벌 시대에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도 학교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으며(Hyun et al., 2009: 4), 정직과 책임과 같은 핵심 인성 요소는 국내 기업의 윤리 경영과 세계 경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Jung et al., 2013: 3).

인성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랫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되어왔다. 인성의 개념은 시대상을 반영하며 개인을 넘어 공동체와 사회에 바람직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확장되었다(Park, Lee, & Bae, 2019: 15-16). 사전적 의미로 인성은 “사람의 성품 또는 각 개인이 가지는 사고와 태도 및 행동 특성”을 뜻한다(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인성은 인품, 인성, 기질, 성격, 인격, 인간으로 되는 과정, 인간의 본질, 생태적으로 타고난 성정 등과 호환되는(Cho et al., 1998: 234; Hyun et al., 2009: 4) 등, 여러 학자가 인성의 의미를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는데¹⁾, 이러한 인성의 개념은 ‘총체성·가치 지향성·교육의 가능성’이라는 비교적 공통된 특징으로 나타난다(Ministry of Education, 2014).

이러한 인성의 공통 개념을 기반으로 학교 가정 사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인성교육진흥법」(2015)이 제정되었다. 인성교육진흥법에서 ‘인성교육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라고 인성교육을 정의하고,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 됨과 관련된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을 목표²⁾로 하는데, 곧 인성교육은 개인뿐 아니라 관계적 차원까지 포괄하여 다 함께 잘 살아가기 위해 보편적으로 요구되는 품성과 역량을 길러주는 교육이어야 한다.

「인성교육진흥법」 제정 및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2016~2020)의 수립 이후, 현재까지 초·중등교육뿐만 아니라 대학교육 전반에서도 인성교육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 각 대학의 교육이념에 맞추어 특화된 인성교육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³⁾. 이는 인성교육이 고등교육의 지식 및 기술 교육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혜와 인성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1) Kim, Park, & Eun (2020: 256) 제5장 1절에 1992~2014년까지 연구자마다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는 인성에 대한 개념이 도표로 정리되어 있다.

2)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24. 10. 1.). Personality Education Promotion Act.

3) 인성교육진흥법은 여전히 여러 논란이 있지만, 인성교육 실천에 대한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대가 형성되고 방법적인 측면에 대한 논의하고 실제로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성과가 있다. 2022년 교육부는 인성교육진흥법 일부를 개정하였는데, 이는 인성교육프로그램의 창의성·자율성 강화를 위해 인증제를 폐지한다는 내용이다.

(Jeon, 2017: 25). 특히 대학생들은 예비 사회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타인 및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덕목을 학습할 필요가 있기에(Lee & Jeon, 2017: 380), 많은 대학은 교육 비전을 재정립하고, 대학의 핵심역량에 인성역량을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다(Lee, 2017: 346-351).

한국의 많은 대학에서 인성교육은 도덕윤리, 대인관계, 감정관리, 성교육, 교양과목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정체성을 확립하고 배려와 공감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Gorden, 2011; Lee et al., 2019: 143). 또한 대학 인성교육은 초·중등학교와 차별화하여 자기 이해, 진로 탐색, 사회 문제 해결, 인문학 소양 강화 등 대학생에게 적합한 내용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Lee & Kwon, 2015: 262).

AI의 발전은 인간의 삶과 사회 전반에 걸쳐 혁신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AI는 인간보다 더 정확하고 적합한 판단을 내리는 존재로 간주되며, 이는 과학기술 의존도를 높이는 동시에 인간의 정신적 빈곤과 소외를 초래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Jang, 2011: 201), 또한 인간 고유의 영역을 위협하며 불안과 무력감을 조성하고 있다(Lee & Kim, 2017: 878). AI의 발전이 인간의 직무를 대체하고 윤리적 딜레마를 야기하는 상황에서, 대학 인성교육은 단순히 도덕적 성장을 넘어 윤리적 판단력과 비판적 사고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Ji, 2017: 45). Floridi도 AI 시대의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바른 윤리적 판단과 도덕적 가치를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Floridi et al., 2018: 700).

더불어 AI 시대에는 체험 중심의 인성교육을 통해 건전한 인격과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습득하며, 이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윤리적이고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Kim & Kim, 2018: 57). 이러한 인재 양성과 AI와 협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감정 지능, 윤리적 판단력, 창의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Yoo, 2018: 37), 다양한 직업군에서 협력과 팀워크가 요구됨에 따라 협력 강화, 리더십,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 구축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대학에서의 인성교육은 새로운 방향으로 확장되고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AI 시대 대학생들은 윤리적 판단, 비판적 사고, 사회적 책임감과 같은 핵심역량과 상호 존중, 배려, 소통과 같은 인성적 덕목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Ministry of Education, 2020).

본 연구는 AI 시대에 요구되는 인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대학생 양성을 위해 대학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수도권 소재 두 개 대학의 인성교육 목표, 교양 교육과정과 비교과를 분석하고, 구체적인 운영 사례를 검토하여 대학 인성교육의 특징과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AI 시대에 적합한 인성교육의 방향성과 시사점을 제시하여 대학 미래 교육 정책 수립과 실행에 기여하고자 한다.

II. 인성교육의 변천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지속적으로 인성교육을 강화하며 관련 정책을 발전시켜 왔다. 이 장에서는 해방 이후 교육과정 개정의 흐름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인성교육의 변천 과정을 다섯 시기로 나누어 인성교육이 어떠한 방향으로 추구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⁴⁾.

1. 인성교육의 변천사

1) 도입기(1945~1992)

제1차 교육과정(1954~1963)은 학생의 개성과 인격의 발달을 교육과정의 기본 원칙 중 하나로 강조하였다. 인성교육은 반공교육, 도의교육을 강조하였다.

제2차 교육과정(1963~1973)은 교육과정 구성의 목표 중 하나로 ‘건전한 정신과 강건한 신체’를 가진 국민의 양성을 제시하였다. 반공·도덕 생활에서 인성교육과 관련된 요소들이 포함되었다. 학습자들이 느끼고 깨닫고 경험하는 측면보다는 국가나 사회에서 이미 정해진 특정 덕목들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인성교육이 이루어졌다.

제3차 교육과정(1973~1981)은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이나 목표가 주로 예절, 개인·사회·국가 생활과 관련된 규범과 태도를 익히는 데 초점이 있었다. ‘국민적 자질의 함양’, ‘지식·기술 교육의 쇄신’과 함께 ‘인간 교육의 강화’를 기본 방침 중 하나로 설정하였다(Ministry of Education, 1973. 2. 14.). 인성교육이 학습자들이 가치나 덕목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를 탐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학습자 밖에 이미 존재하는 규범을 수용하여 내면화·사회화하는 교육이었다는 한계를 가지며, 교육 이론이 ‘생활·경험 중심’에서 ‘학문 중심’으로 바뀌었다.

제4차 교육과정(1981~1987)은 ‘지식과 기술을 익혀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 있는 사람’, ‘자신과 공동체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며 실천하는 자주적인 사람’(Ministry of Education, 1981)이며, 학습자의 주체성이 부각되는 인간중심교육으로 이루어졌다(Kim, 2015: 25). 인격의 함양을 예절이나 습관 등 덕목 중심이 아닌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나 과정의 학습을 통해 비판적 사고와 자율적 판단 능력을 길러주는 것을 중요시하였다.

제5차 교육과정(1987~1992)에서는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조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을 육성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Ministry of Education, 1987a). 5차 교육과정에서는 특별활동이 편제되어 학생들이 도덕적 사고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것이 특징이다.

4) 교육과정의 변천: 1954년 4월 20일, 문교부령 제35호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사범학교 교육과정 시간배당 기준령」을 공포한 이후의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로부터 교육과정의 개정을 통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2) 전개기(1992~2009)

제6차 교육과정(1992~1999)은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을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설정하였다(Ministry of Education, 1992a). 특히 창의성과 도덕성이 처음으로 강조되었다(Ministry of Education, 1992b). 1995년 5월 31일 교육부의 교육개혁위원회가 ‘정보화 시대에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안’에서 ‘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과정’을 제시함에 따라 각 교육기관에서는 인성교육을 구체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그리고, 학교의 교육적 필요나 학생의 요구 등에 따라 범교과 학습, 자기 주도적 학습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Ministry of Education, 1997a).

7차 교육과정(2000~2007)은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 ‘기초 능력을 토대로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민주시민의식을 기초로 공동체의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 등을 인성교육의 인간상으로 제시하여 학교 급별 교육목표에 반영되도록 하였다.

2007 개정 교육과정(2007~2009)은 기본적으로 7차 교육과정의 기본틀을 유지하며, 인성교육을 도덕적 핵심역량으로 산업화의 성공과 국가발전을 위한 협력, 준법과 질서, 자유, 평화, 민족문화, 미풍양속 등의 정신이 강조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Ministry of Education, 2008: 93).

3) 발전기(2009~2012)

2009 개정 교육과정은 국가 교육과정에 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반영한 중요한 전환기였다. 2010년에는 초·중등 교과 활동 전반에서 창의·인성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대학입시에서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창의성과 인성을 평가하였으며(Hyun et al., 2013: 78), 대학에서도 사회봉사와 참여 활동 활성화, 지역사회 및 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교육 추진이 강조되었다.

4) 강화기(2013~2015년)

2013년 5월 발표된 ‘학교교육 정상화로 행복한 학교 구현’은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을 개선하려는 정부의 계획과 방향을 담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Press Release, 2013. 5. 9.).

2013년은 비교적 독립적인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일부 평가 시도 등 인성교육의 기본틀을 마련하는 단계로, 2014년에는 가정과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인성교육을 발전시켰으며, 2015년에는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추진, 인성교육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는 등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인성교육을 의무화하고 평가 체계를 강화하는 해로 이어졌다.

5) 확대·발전기(2016년~)

「인성교육진흥법」에 근거하여 2024년 현재까지 두 차례의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이 발표

되었으며, 매년 시행 계획이 수립·시행되고 있다.

제1차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2016~2020)은 ‘미래사회를 주도할 인성역량을 갖춘 민주시민 육성’을 비전으로 하여, 사회 각 기관에서 ‘인성을 깨우치는 교육’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Ministry of Education, 2016. 1. 19.).

제2차 인성교육 종합계획(2021~2025)은 동일한 비전을 유지하면서, 시민적 인성과 도덕적 인성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AI 시대에 인간 고유의 역량으로서의 인성 함양을 강조하고 있다. 이 계획은 상호연결성이 커지고 정보량이 급증하는 미래사회에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소통하는 인성 덕목이 필수적임을 강조한 것이며, 혐오 범죄, 기후변화와 같은 새로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인성 가치와 덕목을 내면화할 필요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원격수업과 비대면 소통이 증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책임과 존중을 강화하는 인성교육 요구와 맞닿아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20.).

2. 인성교육의 변천사를 통한 각 시기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

위의 인성교육 변천과정에 대한 각 시기별 주요 특징을 <표 1>에 정리하였다.

<표 1> 인성교육 변천과정의 주요 특징
<Table 1> Key Characteristics of Character Education Transition Process

시기	주요 특징
도입기 (1945~1992)	1954년 교육법과 1963년 개정 교육법에서 도덕성과 민주시민 양성을 주요 목표로 삼으며, 도덕교육이 교육과정에 포함되기 시작한 시기 덕목중심 → 균형적 인성능력발달 → 덕목의 주입이 이루어졌다는 한계가 있음
전개기 (1992~2009)	경제 발전과 함께 사회적 혼란과 도덕적 위기가 발생하면서 인성교육의 중요성 부각과 공동체 의식 회복과 도덕적 자질 함양이 학교 교육의 목표로 자리잡은 시기 학생들의 내적 요구와 생활 경험의 체계에 따라 구성됨
발전기 (2009~2012)	정부의 체계적인 인성교육 프로그램 도입 본격화 및 교육과정에서 인성 관련 교육을 필수 요소로 포함 이 시기는 학교폭력 등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면서 인성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된 시기, 정부는 체계적인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도입 본격화.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국가적 정책이 발전하면서, 교육과정에 인성 관련 교육이 필수 요소로 포함
강화기 (2013~2015)	2015년 인성교육진흥법 제정: 학교 인성교육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시기
확대·발전기 (2016~)	4차 산업혁명과 AI 시대를 맞아 인간적인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지면서 인성교육의 범위가 확대되는 시기

이상의 인성교육의 변천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인성교육은 시대적·사회적 배경의 영향에 따라 사회가 중시하는 덕목이나 가치를 중심으로 그것을 내면화하여 실천하게 하는 행동적 접근의 인성교육이 강조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Kwon, 2005: 50).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과 AI 시대를 맞아 기술 발전 속에서도 인간적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지면서 인성교육의 범위가 확대되는 시대이다. 인성교육은 디지털 리터러시, 윤리적 판단, 협력과 같은 미래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제도적·교육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인성교육이 국가 교육 체계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시기에 대학교육에 있어서 인성교육이 어떻게 교육과정에 녹여져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I. 대학 인성교육 사례분석

본 연구는 한국의 수도권에 소재한 4년제 대학에서 인성교육에 있어 우수한 두 대학을 선정하여 인성교육 현황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두 대학의 인성교육을 인성교육 목표, 인성교육의 교과과정, 인성교육 비교과 프로그램의 분석을 통해 시사하는 바를 찾고자 하였다.

1. A 대학⁵⁾

1) 인성교육의 목표

A 대학교는 인간의 존엄성을 토대로 자기완성과 인류평화의 달성을 목표로 하는 수기치인(修己治人)의 유교정신의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첫째, 인의예지의 품성과 신언서판(身言書判)의 능력을 갖춘 교양인을 기르는 것, 둘째, 창의적사고와 도전정신으로 디지털 시대의 신(新)가치를 창출하는 전문가 배양, 셋째, 인류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글로벌 역량을 갖춘 리더 육성을 구체적 목표로 삼고 있다.

2) 인성교육의 교과과정

A 대학교에서는 A 대학교 고유 인성교육 전범을 제시하고 창의적·포용적 리더를 양성하며 공고화·대중화를 선도하고 확산하기 위해 A 인성교육센터(2013년 7월 1일)를 설립하여, 이곳을 중심으로 교양필수교육과 비교과프로그램, 대외협력·공유팀 운영에 힘쓰고 있다.

A 대학교의 교양교육과정은 중점교양과 균형교양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점교양은 학생 모두

5) A 대학의 인성교육에 대한 자료는 주로 「A대학의 2024학년도 학사요람」과 ‘A인성교육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주된 연구 자료로 한다.

가 일정한 시기에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공통의 교과 내용과 주제를 공유한다. 균형교양은 자유세계의 시민이자 지식인으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소양이나 능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학문 분야를 두루 섭렵하게 한다. 교양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은 수업 시간 외에 별도로 4시간의 자기 학습 시간을 가지며, 이를 통해 학습의 심화와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표 2>와 같다.

<표 2> A 대학교 교양과정 최소 이수학점(모든 학생 공통사항)
<Table 2> Minimum credit for completing Liberal arts courses at A University

영역			학점
중점교양	A 대학인성 · 리더십	A논어	2
		앙트레프레너십과리더십	
		실천리더십	
	고전 · 명저		3
	창의		3
	의사소통		4
	글로벌		4
균형교양	인간 · 문화		6
	사회 · 역사		
	자연 · 과학 · 기술		
합계			22

Source: A University's 2024 Academic System Guide (2024: 232)

(1) 교양교육과정: 중점교양과정의 영역 구성

‘중점교양’은 <표 2>에서 보듯 인성 · 리더십, 고전 · 명저, 창의, 의사소통, 글로벌 등 5개 소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인성 · 리더십, 고전 · 명저를 인성교육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다.

인성 · 리더십영역은 2학점으로 졸업 필수 요건으로 세 개 교과 중 「A논어」는 대표적인 교과로서 매년 4,000여 명의 학생이 수강하고 있다. 「A논어」 강좌 현황은 <표 3>과 같다.

<표 3>의 내용으로 알 수 있듯이, 학생들은 「A논어」를 통해 인간 · 자연 · 우주와의 조화를 지향하는 유학적 사고를 키우고, 인의예지 · 수기치인의 A 대학의 이념을 실천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학문 분야를 통합한 실천 중심의 리더십 입문 교과목인 「앙트레프레너십과리더십」 및 「실천리더십」 수업을 통해 이론뿐 아니라, 발표, 그룹 활동, 실무적 문제 해결과 같은 실습을 중점적으로 함으로써 리더십을 실제 자신의 역량으로 내재화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학생들은 별도로 4시간의 자기 학습 시간을 가지며, 이를 통해 학습의 심화와 자기 주도

<표 3> A논어의 구성
<Table 3> Composition of A University Lunyu

구분	내용
인(仁)	‘사람다움’의 의미를 집중적으로 소개. 흔히 어진 마음이나 사랑으로 이해되는 인은 ‘친밀한 관계의 확인’이자 ‘나에게서 타자로 점차 확대되어 우리 모두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을 모색하는 과정’임.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인의 정신은 동심원을 그리며 사회와 자연 생태계로 확대되어 모두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세상의 완성을 지향하려는 것임
의(義)	경쟁 시대에 어진 마음에 기초한 정의로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탐색함. 올바름을 뜻하는 의는 우리 마음의 저울추라 일컬어짐. 수업에서는 정치와 경제 분야의 사례를 통해 의로움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해야 하는지 현실적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함
예(禮)	사람 간 만남에서 ‘타인을 배려하고 조화를 지향하는 행동 양식’에 대해 알아봄. 예를 잘못 생각하면 억압이나 거추장스러운 절차로 생각하기 쉬움. 그러나 사람은 홀로 살 수 없는 공동체적 삶의 가운데에 있음. 따라서 예는 사회관계의 내비게이션임. 예의 본질과 형식을 통과의례로 여겨지는 관혼상제를 통해 보다 이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나감
지(智)	지식을 넘어 지혜로의 길을 찾아보려 하고 사회적 성공만을 위한 지식 추구의 수단적인 공부를 넘어서야 함. 참다운 지혜를 좇으며 공부의 의미와 목표를 되새김

Source: Confucianism Humanity Education Center (2024. 10. 5.) : Regular Course In The Character Field.

적 학습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전·명저」 또한 필수 이수 교과로 학생들이 세계의 고전 문학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 캠퍼스 학생들이 통합하여 플립드 클래스(Flipped Class) 형식의 토론을 통해 비판적 사고와 분석 능력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창의 영역은 「창의적융합디자인」한 교과만을 필수로 하는데, 이 영역에서는 학생들이 다양한 사고방식을 적용하여 복잡한 문제를 분석하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⁶⁾

(2) 교양교육과정: 균형교양과정의 영역 구성

위의 <표 2>에서 보듯 인간, 자연 및 세계에 대해 균형 잡힌 안목과 통찰력을 기르기 위한 ‘균형교양’ 과정은 인간·문화, 사회·역사, 자연·과학·기술의 세 가지 주요 영역으로 구성되

6) 세 영역 이외에 의사소통 영역은 학문적 텍스트를 넓은 의미에서 이해하고, 이를 자료로 삼아 사유를 전개하여 자신의 견해나 이론을 정립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정립된 견해를 다른 사람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능력, 즉 높은 수준의 문해 능력, 정보 이해 능력, 비판적, 논리적, 창의적 사유 능력, 그리고 글쓰기 및 말하기 등의 표현 능력 함양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글로벌 영역은 외국어 능력 향상과 타문화 이해 증진을 통해, 세계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어 있다. 이 과정은 다양한 학문과 유교적 시각을 접목하여 현대 사회의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필수 교양과목들로 「유교자본주의」, 「한국사상과문화의이해」 등이 개설되어 있다.

이외 ‘A대학 인성교육센터’에서는 일반선택 교과목 중 필수교과인 A 대학의 교육 철학을 반영한 「A인성수양」(1학점)을 운영하고 있다⁷⁾. 이 교과목은 학생들이 인성에 관한 이론적 지식을 학습하고, 실천적 참여 활동을 통해 내면화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적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15주 과정 중 1~6주차는 온라인을 통한 이론 학습 단계로, 학생들은 A 대학의 역사와 문화뿐만 아니라 퇴계 이황, 율곡 이이, 다산 정약용, 심산 김창숙 선생의 학문적 업적과 삶의 철학을 학습한다. 학생들은 선현들이 실천했던 앎과 실천의 조화라는 인성교육의 가치를 탐구하며 전통적 인성교육의 본질을 이해하고, 현대적 맥락에서 이를 적용하는 방법을 모색할 기회를 갖는다. 7~14주차는 실천과 참여를 통한 학습 단계로, 이론적으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경험적 학습 활동에 참여하도록 설계되었다. 이 단계에서는 봉사활동, 협력적 과제 수행, 윤리적 행동 실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공동체 의식과 책임감을 기르고, 학습한 이론을 실제 생활 속에서 적용하며 인성 함양의 가치를 실천적으로 체득할 수 있도록 한다. 15주차에는 인성함양체험활동보고서를 제출하여 평가를 받는데 평가방식은 P/F이다.

(3) 인성교육 비교과: 인성함양 실천 프로그램 운영

A 대학교는 인간으로서의 덕목을 함양하고 미래사회를 선도할 창의적·포용적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첫째, 인성함양실천 프로그램은 교과에서 배운 내용을 자신의 삶 속에서 직접 접목하고 체험해 봄으로써 교과-비교과 연계의 시너지를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다. “성균, 흥인, 돈의, 숭례, 홍지, 인성함양 PPT 공모전, 인성여행캠프(부모님과 함께하는 인성여행), 인성캠프 등과 A색(色)-인성을 말하다, 인성예세이”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실제 생활에서 인성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이 도덕적 가치와 공동체 의식을 직접 체험하고 실천하는 기회를 갖는다. 인성함양실천프로그램 중 [흥인, 돈의, 숭례, 홍지]의 프로그램 구성은 <표 4>와 같다⁸⁾.

7) A 대학에서는 교양과정이 아닌 일반선택과목(74과목) 중 「정보통신윤리」, 「사회봉사론」, 「예절교육및실습」, 「창의인성교육의이해」, 「4차산업혁명의이해와진로탐색」, 「A인성수양」, 「리더십과경영」 등 인성 관련 교과목 7개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8) 프로그램은 매 학기 1~3회 또는 2~3회 운영되고, 수업 환경 변화에 따라 프로그램 진행 횟수와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프로그램 이수 시 창의품 2시간 부여 및 2024학번은 FYE세미나 15점 부여를 하고 있다.

<표 4> A 대학 인성함양실천프로그램
 <Table 4> A University Personality Development Practice Program

구분	내용
홍인 (興仁)	• 홍인Ⅰ 몸과 마음 돌보기: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와 일상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수강자들 개개인이 각자의 삶의 중심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 • 홍인Ⅱ 사군자 그리기: 사군자를 그리며 옛 문인들의 삶을 밀접하게 체험 및 홍인을 실천해보고, 완성된 서로의 문인화 작품을 서로 감상하고 품평
돈의 (敦義)	• 인(仁)을 의(義)를 통해 확신하고 실천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참여자 스스로 봉사활동이나 사회참여활동을 기획하고 시행하며 참여자들과 공유하는 프로그램 • 자신 내면의 정의감이 의(義)를 성찰하여 자각하고 타인에 대한 공감과 배려의 실천을 통해 그의를 확산하여 참된 A 대학인을 완성 • 주체적이고 이타적인 삶의 태도를 배양하고 치국-평천하의 실현 동력을 갖추어 나감
승례 (崇禮)	• 예절의 기본정신을 알고 구체적 사례의 실습을 통해 예의식을 고취하며 올바른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기본으로 타인에 대한 공경심과 배려심을 함양하는 프로그램 • K-한복의 특징과 입는 방법 및 공수법과 배례법 등의 전통 인사법을 익히고, 술 마시는 예절인 향음주례(鄉飲酒禮)와 차(茶) 마시는 예절인 다례(茶禮)를 실습 • 학교나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현대매너 등의 실용적 예절을 실습과 토론을 통해 학습
홍지 (弘智)	• 현재의 나를 성찰하고 올바른 삶을 기획하면서 올바른 인성과 세계관을 확립 • 퇴계의 『자성록(自省錄)』을 본떠 학생 개인의 『자성록』을 제작하고 스스로 자아를 성찰하고 삶을 돌아보며 『자성문(自省文)』을 지으며 지적 성장 도모

Source: Confucianism Humanity Education Center (2024. 10. 6.) A Personality Training Program.

<표 4>의 내용에서 보듯, 이 프로그램은 자기 성찰과 내적 열정을 강조하는 홍인에서 시작하여, 공동체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돈의,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예절 교육을 제공하는 승례, 그리고 자기 정체성과 세계관을 확립하는 홍지로 이어진다.

홍인은 학생들이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삶의 중심을 다잡을 수 있도록 돕는 활동으로, 교과과정에서 배운 「A논어」의 가르침을 실생활에 적용하도록 설계되었다. 돈의는 정의와 의를 성찰하며 봉사활동과 사회참여를 통해 타인에 대한 공감과 배려를 실천하도록 유도하고, 승례는 전통과 현대적 예절을 배우고 실습하며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매너를 익히게 한다. 마지막으로 홍지는 학생들이 자신의 정체성과 세계관을 확립할 기회를 제공하며 자아 성찰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부모님과 함께하는 인성여행」은 부모님과 재학생이 함께 참여하여 상호 공감함으로써 가족의 유대를 돈독히 하며, 부모님에 대한 효의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등 학생과 학부모의 정서 안정과 인성 함양에 도움을 주어 성공적으로 대학생생활 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하여, 아울러

상호 인성을 함양하는 A 대학의 독특한 프로그램이다.

둘째, 대외협력·공유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및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며, 인성교육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다. 즉 인문동양학아카데미, 인성나눔프로그램, 군 인성교육, 지역아동센터·학인회이다. 인문동양학아카데미는 600여 년의 유구한 인문동양학 전통과 첨단 과학기술의 융합을 시도하는 최고급 공개강좌로, 지인용(智·仁·勇)의 3대 가치를 바탕으로 큰 선비 리더십 구현을 목표로 한다. 이 강좌는 논어와 같은 동양고전의 학습을 통해 현대 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동양 인문정신의 가치를 체득하도록 돕는다. 인성나눔프로그램은 대학에서 배운 전문지식을 지역사회에 적용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설계된 현장 중심의 경험형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수기치인’형 융합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지역사회 사회복지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학생 주도의 봉사활동을 통해 실행된다. 또한, 인성 필수 교과를 담당하는 교수가 인솔자로 참여하여 학교 인근 지역아동센터 및 사회복지기관들과 MOU를 체결하고, 이를 기반으로 소외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인성 멘토링, 대학 탐방, 진로·진학 코칭, 학습지도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한다. 이러한 활동은 학생들이 학문적 지식을 실천으로 연결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A 대학교는 졸업필수요건으로 ‘(신)3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졸업 전까지 인성 분야를 포함한 세 가지 분야에서 인증을 취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교육과정을 이수가 아닌, 실질적인 역량과 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학생이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했다라도 3품 인증을 완료하지 못하면 졸업이 불가능하며, 수료자로 처리된다. 특히, 2020학년도 이후 입학생들에게는 인성 분야 인증이 필수로 지정되어 있다. 학생들은 이를 포함하여 글로벌, 창의, AI, 인턴십 중 두 가지를 추가로 선택하여 총 세 가지 분야에서 인증을 완료해야 졸업할 수 있다. 각 분야별 인증 요건은 상이하며, 학생들은 이에 따라 정해진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일반선택 과목으로 개설된 ‘사회봉사론’을 수강하는 경우, 수업 시간 중 최소 30시간 이상의 사회봉사활동을 수행해야만 해당 과목의 이수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기준은 학생들에게 단순한 이론 교육을 넘어 실질적이고 체험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적 책임감과 봉사 정신을 함양하도록 돕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같이 A 대학의 인성함양실천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자신의 내적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체와 사회에 기여하는 참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설계된 프로그램이다.

2. B대학⁹⁾

1) 인성교육의 목표

B 대학은 ‘기독교정신’을 바탕으로, 지·덕·술(智·德·術)을 갖춘 여성지도자 양성’을 실현하기 위해 전문인의 양성, 기독교 정신의 함양, 실천인의 육성이라는 3가지 교육목표를 수립하였다. 또한 다가오는 미래를 선도하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대학의 정체성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기존 교육목적에 계승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선도하는 PLUS형 인재 양성’으로 교육 목적을 제시하며 ‘감성적 인지력을 갖춘 전문 인재’, ‘개방적 태도와 수평적 협력을 실천하는 인재’, ‘공동체 정신의 사회적 확장을 선도하는 인재’로 인재상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B 대학 인성교육센터인 바롬인성교육부에서 공동체 중심 생활교육 프로그램인 바롬인성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바롬”은 순우리말로 ‘바르다’는 뜻을 담고 있으며, 경쟁보다는 화합, 개인적 성취보다는 올바른 인성을 강조하는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한다. 바롬교육은 B 대학의 독특한 실천 중심 전인교육 철학을 기반으로 설계된 프로그램이다.

B 대학의 4차 중장기 발전계획에서는 “PLUS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창조적 문제 해결 역량, 감성적 인지 역량, 글로벌 시민 역량, 디지털 문해 역량 등 4대 핵심역량을 제시하며, AI 시대에 필요한 디지털 문해 역량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전략 방향은 사회적 가치실현, 미래선도 참여교육 확산, SWUMAN 역량 강화, 인프라 고도화로 구성되며, SWUMAN 역량 강화에서는 여성리더십개발과 디지털 시대의 인문학적 소양 함양을 중점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2) 인성교육 교과과정

B 대학의 교육 철학은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과정에 깊이 반영되어 있으며, 학생들에게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각과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고 있다. 바롬인성교육부에서는 2020학년도부터 개편된 바롬교육체제를 적용하여 운영 중이다.

(1) 교양 필수

B 대학교 교양필수 과목은 기독교개론(2학점), 바롬교육[바롬인성교육(1학년), 바롬종합설계프로젝트(3학년)], 대학영어(기본 중급 고급 /듣기말하기), 소프트웨어와 창의적사고이다.

1학년 대상의 「바롬인성교육」은 3주간 생활학습공동체 기반 교육활동이다. 학생들은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수업·학생·자율 팀 활동 생활교육”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생활학습공동체교육에 참가하게 된다. 수업은 6단계로 진행된다. 수업1의 주제는 ‘나다움으로의 여행’ → 수업2는 ‘진정한 나를 찾아서’ → 수업3은 ‘관계, 차이 그리고 그 너머’ → 수업4는 ‘공동체의

9) A 대학의 인성교육에 대한 자료는 주로 2024학년도 학사편람과 바롬인성교육부의 교육체계 및 교육과정 등의 문헌자료를 연구 자료로 한다.

가치를 찾아서' → 수업5는 '개인의 가치와 공동체 가치가 함께 만드는 공정한 사회를 향하여' → 수업6은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이다. 이 수업은 바롬페스티벌 발표회로 마무리한다. 이렇게 실제적 경험과 참여를 통한 “함께 행하면서 배우는” 삶이 삶이 되는 통합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공동체 안에서 자신을 통찰하고, 타인 이해 및 공감을 바탕으로 공동체 성장을 위한 실천의지를 함양하게 된다.

3-4학년 대상의 「바롬종합설계프로젝트」는 한 학기 간의 팀프로젝트 기반 수업이다. 2023년도에 이 교과는 유네스코(UNESCO) 지속가능교육 인증을 획득하는 성과를 이루기도 하였는데, 1-2학년 동안 이수한 「바롬인성교육」과 교양 및 전공교과과정을 통한 교육과 훈련을 바탕으로 한층 더 심화된 학습과 실천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세계 속의 자신’을 인식하고, 국제적 및 지역적 문제를 조망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또한, 학생들은 새로운 문제를 정의하고 창의적인 해결방안을 탐구하며, 직접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통해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

2024학년도 바롬인성교육과정은 <표 5>와 같다.

<표 5> 2024학년도 바롬인성교육과정과 교육내용
<Table 5> 2024 Bahrom Personality Curriculum and Education Contents

교과목	학년	학점	내용
바롬 인성 교육	1	1	• 3주간 수업, 활동, 그리고 생활에서의 실천이 이루어지는 통합교육방식의 생활학습공동체교육 • 수업 6회, 학생 자율 팀 활동 4회, 생활교육을 위한 만남의시간, 특별교육 프로그램(아침 신체활동멘토링, 수요특강), 바롬페스티벌 전시회 및 발표회 • 나 자신, 타자, 그리고 공동체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자아정체성 교육으로 공동체에서의 자신을 통찰하고, 타인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공동체의 성장을 위한 실천의지 함양을 목적으로 함
바롬 종합 설계 프로 젝트	3	2	• 15주간의 학생 주도 팀프로젝트 수업(TPBL)방식의 캡스톤디자인(종합설계 프로젝트)수업 • 팀별로 사회문제 현안을 검토하고 창의적 문제해결과정을 통해 최적의 해결방안을 찾아내고 직접 실천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가치실현에 기여함 • 세계시민의식으로서의 역량 함양(사회적책임감, 협력, 공감적 의사소통, 비판적 사고력 함양)

Source: Academic Handbook for the 2024 Academic Year (2024: 78.)

(2) 교양 선택

B 대학의 교양 선택 과목은 현대 사회의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설계된 통합적 교과목으로 기초교양, 영역교양(인문과학, 사회과학, 과학기술, 문화예술)과 일반교양으로 편성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역량을 갖춘 전인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인성과목은 「인성교육개론」(이론 과목), 「바름심화종합설계프로젝트」(이론과 실습 과목), 「평화와갈등해결」(이론 과목), 「민주시민과공감소통」(이론과 실습 과목)등 네 과목이며, 각 과목은 이론과 실천을 결합하여 학습자들에게 폭넓은 학문적 이해와 실질적 경험을 제공한다.

「인성교육개론」¹⁰⁾은 사회성, 감성, 도덕성을 아우르는 통합적 인성교육을 소개하는 과목이다. 이 과목의 목표는 학습자가 급변하는 시대적 맥락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공동체와의 관계를 이해하고, 인성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학습한 인성적 역량을 현실 속에서 조화롭게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데 있다. 인지적·정서적·실천적 관점에서 현실 생활에 밀접한 인성 실천 의지를 함양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여타의 윤리도덕 기반의 인성교육과 차이점을 갖는다.

「바름심화종합설계프로젝트」¹¹⁾는 바름종합설계프로젝트의 과정에서 시도해본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와 세계시민의식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실행한다. 이 과목은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과 팀을 이루어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Team Project Based Learning 방식으로 운영된다. 학습자는 프로젝트를 통해 비판적 사고, 의사소통, 창의성, 협업이라는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4C(Critical Thinking, Communication, Creativity, Collaboration) 역량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강화하며, 현실 사회에서의 직접적인 기여와 구체적인 성과를 달성한다.

「평화와갈등해결」¹²⁾은 평화와 갈등의 개념을 폭넓게 이해하고, 일상 속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구체적 방법을 학습한다. 학습자는 갈등의 본질과 특징, 전개 과정을 탐구하며 협상과 조정, 의사소통 원리를 바탕으로 개인적·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을 익힌다. 특히, 사례를 통해 평화적 소통 방식과 비폭력적 갈등 해결 방법을 탐구하며, 평화 감수성역량을 함양한다.

「민주시민과공감소통」은 글로벌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민주시민 역량과 공감소통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둔 과목이다. 학습자는 주체적인 민주시민으로서 자신의 권리와 의무, 책임을 이해하고 이를 실천방안으로 발전시키며, 다양한 사회적 관계 형성에 필요한 공감과 소통 능력을 배양한다. 또한, 사회적 역할과 정체성을 자각하고 이를 기반으로 민주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한다. 이 과목은 공적·사적 생활에서 필요한 실천적 접근 방식을 제공하며, 학생들이 개인적 성장과 공동체적 기여를 동시에 이루도록 돕는다.

10) 이 과목은 교양필수인 ‘바름인성교육’의 심화 과목이자, 3학년 교필과정의 ‘바름종합설계프로젝트’와의 연결고리 과정이기도 하다. 수강대상은 전학년으로, 비교과 프로그램인 ‘바름인성심화과정’의 필수 이수 교과로 운영된다.

11) 2020학년도 이전의 교육과정이었던 ‘바름인성교육III’ 및 3학년 교양필수인 ‘바름종합설계프로젝트’의 심화과목이다.

12) 이 과목은 비교과 프로그램인 ‘바름인성심화과정’의 이수 교과목으로, 모든 학년에 개방되어 있다.

(3) 인성교육 비교과: 인성함양 실천프로그램 운영

B 대학은 교과와 비교과의 연계과정을 통해 체계적인 인성교육을 제공하며, 학생들이 전인적 성장과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바름인성심화과정」은 인성 함양에 초점을 맞춘 비교과 특별 인증 과정이다. 이 과정은 인성 우수학생의 발굴과 필수교양과정인 ‘바름인성교육’의 효과를 지속, 증폭하기 위해 개발한 과정으로 인성함양 및 글로벌시민의식과 밀접하게 관련된 교과목을 집중이수하고 소정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이수증을 발급한다. 즉 1학기부터 7학기 이내의 재학생으로, 교양필수 바름인성교육 과정 이수, 5대 교과영역별 1과목 이상 이수 및 5과목 평균 평점 3.5 이상, 간담회 3회 참석, 봉사활동 64시간 이상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학생은 심사단의 심의를 거쳐 졸업 시 ‘바름인성심화과정 이수증’과 ‘바름인성지도사 3급 자격증’을 수여받게 된다.

B 대학의 인성교육은 학문적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 공동체적 가치를 내면화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전인적 성장과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교육과정과 방식을 알 수 있었다.

IV. 대학 인성교육 비교분석과 AI시대 시사점

이상 두 대학에 대한 인성교육의 목표, 인성교육의 교과과정과 비교과과정의 운영 사례를 살펴해보았다. 살펴본 바, 두 대학은 정보화,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여, 시대가 요구하는 미래지향적인 특성과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실천적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매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두 대학은 인성교육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 교과 및 비교과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교육을 하기 위해 노력 중임을 알 수 있었다.

1. A 대학과 B 대학의 인성교육 목표 분석

A 대학과 B 대학은 각 건학이념에 부합하여 교육목표 및 인재상을 설정하여 각각 독자적인 인성교육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A 대학은 인간의 존엄성을 토대로 자기완성과 인류평화의 달성을 목표로 하는 수기치인의 유교정신을 건학이념으로 하여 A인성교육센터를 중심으로 인성교육에 힘쓰고 있다. 「인성교육진흥법」에서 정의하는 핵심 가치와 덕목인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등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즉, A 대학은 유교의 근본정신인 ‘인의예지’를 바탕으로 철학적 사고와 윤리적 기초를 강조하며, 학생들의 성선적 본성을 깨우고 도덕적 판단력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체험학습, 교양과목, 전인적 성장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

과정을 통해 이론적 학습과 실천적 활동을 조화롭게 결합하여 인성교육에 힘쓰고 있다. A 대학교는 인성교육의 목표를 도덕적 판단력과 공동체 의식을 갖춘 전인적 인재 양성에 두고, 인간·자연·사회 간 조화로운 관계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또한, 창의적 사고와 도전 정신을 통해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인재를 육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AI 윤리와 디지털 리터러시 등 현대적 교육내용을 추가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

B 대학은 기독교적 공동체정신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선도하는 PLUS형 인재 양성을 위해 바롬인성교육부를 중심으로 바롬인성교육이라 인성교육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인성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자 한다. 기독교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바롬인성교육은 전통적 덕목과 현대적 역량을 결합하여 실천 중심의 교육을 제공하며, 공동체 생활과 자기성찰을 통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실천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듯 두 대학 모두 전통적 가치에 기반한 인성교육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두 대학 모두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역량 중 하나인 ‘창의융합형 인재상’을 제시하며,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인성교육의 방향성을 일부 반영하고 있다.

2. A 대학과 B 대학의 교과과정에서의 인성교육 분석

A 대학과 B 대학은 각각 인성교육의 교과과정에서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을 통해 인성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A 대학은 이론 중심 또는 서구 중심적인 인성교육에서 벗어나 동아시아의 고유가치에 기반을 둔 실천적이고 적극적 참여형 인성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즉 A 대학의 교양과정 중 필수 과목을 통해 윤리적 가치와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한다. 특히, 「A논어」와 「고전·명저」 등의 고전독서를 통해서도 지적 탐구와 토론 활동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 도덕적 가치 및 인성개발에 효과가 있다. 「실천 리더십수업」 과목에서는 실제 자신의 역량으로 내재화할 수 있도록 수신 → 제가 → 치국 → 평천하의 대주제를 내용으로 설계하였다.

또한, 일반선택 과목인 「A인성수양」을 통해 전통적 인성교육의 본질을 이해하고, 현대적 맥락에서 이를 적용하는 방법을 모색하기도 한다.

강의 운영도 강의(Flipped Classroom 방식), 조별 토론/발표, 질의/응답, 과제발표(체험), 성과물 발표 형식을 취함으로써, 자기 주도적 학습 및 문제해결학습을 하도록 운영하였다. 수업 끝엔 자기 PT를 통해 변화 전의 자기와 변화 후의 자기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였다.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이 수업 시간 외에 별도로 4시간의 자기 학습 시간을 가지며, 이를 통해 학습의 심화와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특징이다.

A 대학의 필수 과목은 유교적 가치를 내재화하고 이를 실생활에 적용하도록 돕고, 선택 과목은 도덕적 사고와 사회적 책임감을 강화한다. 그러나 선택 과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일부 과목을 교양필수로 확대 지정할 필요가 있다.

B 대학은 1학년 「바름인성교육」을 통해 3주간의 생활공동체교육에서 공동체 속에서의 자신을 둘러싼 다양한 관계와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한 후, 자기 성찰을 수행하며, 나다움의 본질을 깊이 이해한다. 즉 바름인성교육의 교육목표와 철학을 이해하고 이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여 공동체의 부분으로서 개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게 한다면, 2학년 「인성교육개론」 등의 과목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3-4학년에서는 「바름종합설계프로젝트」를 통해 팀별로 사회문제 현안을 검토하고 최적의 해결방안을 찾는 창의적 문제해결과정을 통해 사회적 가치실현에 기여하는 과정을 운영하여 인성의 내면화에 기여하는 등 두 대학 모두 인성교육 교과를 체계적으로 연결 심화하고 있다.

두 대학 모두 건학이념은 다르지만, 신입생 시절에는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키우고자 ‘위기지학(爲己之學)’의 프로그램을 주로 운영하고, 고학년이 될수록 여러 인성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위인지학(爲人之學)’을 할 수 있도록 배정한 공통점이 있다.

두 대학 모두 이론적 학습과 실천적 경험을 통합하려는 강점이 있으며, A 대학은 유교적 전통을 통해 철학적 사고와 윤리적 기초를 강조하는 반면, B 대학은 기독교적 공동체 가치를 기반으로 실천 중심의 문제 해결과 글로벌 시민 의식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음도 알 수 있었다.

3. A 대학과 B 대학의 인성교육 비교과과정에서의 인성교육 분석

A 대학과 B 대학 모두 학생들의 인성역량을 제고하고 객관적인 인성역량을 갖추게 하기 위한 인성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교과-비교과 연계 인증프로그램으로 대학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실천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A 대학은 유교적 전통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윤리적 판단력과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 프로그램 “홍인, 돈의, 승례, 홍지”가 있다. 이를 통해 도덕적 가치와 공동체 의식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인성여행”은 바로 이 대학의 정체성이기도 한데 ‘효’를 일깨우는 프로그램이다. 이와 더불어 A 대학은 3품 인증제를 통해 학생들이 인성, 글로벌, 창의적사고 역량을 강화하며, 이를 졸업 요건으로 공식 인정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한다.

B 대학은 기독교적 공동체 가치를 바탕으로 설계된 바름인성심화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공동체적 가치를 내면화하고 봉사와 실천을 중심으로 윤리적 책임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소정의 이수요건 충족시 ‘바름인성심화과정 이수증’과 함께 ‘바름인성지도사 3급 자격증’을 얻

게 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실천 중심 학습의 결과물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A 대학은 유교적 전통을 기반으로 윤리적 사고와 자기 성찰을 강조하며 전통적 가치와 현대적 요구를 융합하려는 점에서 강점인 반면, B 대학은 기독교적 공동체 정신을 중심으로 봉사활동과 실천을 통해 학생들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데 주력하고 있다.

두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은 「인성교육진흥법」의 핵심 가치를 충실히 반영하며 전통적 가치에 기반한 인성교육을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A 대학과 B 대학 모두 교과나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협력(collaboration)을 통해 서로 의견이 다른 이들과 소통하고, 치열하게 논의해서 의견일치(consensus)에 이르는 과정도 배우는 글로벌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갖추고 공동체의 화합을 이끄는 실천형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AI 시대의 요구를 충족하면서도 AI와 차별되는 인간의 강점이 퇴색되지 않도록 디지털 윤리와 기술 활용 능력을 강화하는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두 대학은 창의적이고 윤리적인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는 목표를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시대와 무관하게 교육의 근본이자 본질인 인성교육은 인생 전 과정을 통해 지속되고 연결되어 이루어져야 한다. 대학교육에서는 타인과의 상생을 위해 개인의 삶을 조명 성찰하기 위한 인성교육을 더욱 구체화하고 발전시켜야 할 사명감이 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사회 그리고 자동화와 AI 시대라는 불확실한 미래로, 인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는 요즈음, 두 대학의 인성교육은 우리에게 자신의 내면을 살피고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결론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인성교육의 목표 측면에서 두 대학은 각각의 철학과 종교적 사상을 기반으로, 「인성교육진흥법」이 지향하는 핵심 가치 및 덕목과 일치하는 명확한 인성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AI와 융합된 인성교육 목표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이를 강화해야 한다.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기술의 잠재적 위험성과 이를 책임 있게 활용하는 방법을 탐구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 목표를 시대적 맥락에 맞게 수정·확장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인성교육 과정에서 두 대학 모두 인성교육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여 학사과정 내에서 인성 함양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런데 A 대학은 AI 시대에 적합한 윤리적 판단 기준을 학습하기에는 정보통신윤리 과목만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AI와 관련된 윤리 교육을 추가적으로 개설할 필요가 있다. B 대학은 학년에 따라

바롬인성교육을 필수와 교양으로 이수하게 하고 있지만, 윤리·도덕적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필수 과정의 보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존 인성교육 과정을 디지털 윤리, AI 책임성, 기술과 사회에 관한 토론을 포함하는 융합형 교육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두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은 ‘인증제’를 통해 전통적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인성과 실천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나, 디지털 윤리와 기술 활용 역량을 반영한 추가적인 발전이 요구된다. B 대학의 바롬인성심화과정 역시 AI 사회에서 요구되는 비판적 사고, A 윤리,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같은 주제를 다루기에는 한계를 보인다. 따라서 두 대학 모두 디지털 리터러시와 윤리적 판단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을 추가로 설계하고, AI 시대의 핵심역량을 갖춘 윤리적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인성교육을 확장·강화해야 한다. 디지털 봉사활동이나 AI 기반 사회적 문제 해결 프로젝트와 같은 체험 중심의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두 대학은 전통적 가치와 현대적 요구를 조화롭게 융합하여 AI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는 혁신적인 인성교육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발전을 통해 두 대학은 창의적이고 윤리적인 글로벌 인재 양성을 더욱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후속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본 연구는 한국의 두 개 대학을 사례로 문헌 분석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을 확대하고 다양한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연구 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특히, 다양한 지역과 유형의 대학을 포함한 비교 연구나 정량적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 연구를 통해 보다 폭넓은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제시된 결과를 바탕으로 AI 시대에 적합한 인성교육 체계를 구체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AI 시대에 요구되는 새로운 가치를 반영한 핵심역량을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명확한 교육과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교육과정은 디지털 윤리, 책임성, 기술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포함하여, 대학생들이 기술적 도전과 윤리적 과제를 균형 있게 다룰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노력이 뒷받침될 때, AI 시대에 적합한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인성교육 방안이 수립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대학 인성교육이 전통적 가치와 현대적 요구를 조화롭게 반영하며, AI 시대를 선도할 윤리적이고 책임 있는 인재 양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ferences

- Bahrom Character Education Center (2024. 10. 5.). Bahrom Personality Curriculum and Education Contents. 2024. 10. 5. Retrieved from <https://bahrom.swu.ac.kr/>

- Cho, J. S. (2020).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University Character Education Curriculum Utilizing Yangmyeonghak. *Journal of the Korean Yangmyeonghak Society*, 59, 177-212.
- Cho, Y. S., Kim, A. Y., Im, H. S., Shin, D. J., Cho, A. I., & Kim, I. J. (1998). Component Factors of Desirable Character Education 1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28(1), 131-152.
- Confucianism Humanity Education Center (2024. 10. 5). Regular Course In The Character Field. Retrieved 2024. 10. 5. from <https://chec.skku.edu/chec/course/noneo.do>.
- Confucianism Humanity Education Center (2024. 10. 5.). A Personality Training Program, Retrieved 2024. 10. 5. from <https://chec.skku.edu/chec/program/sungkyun.do>
- Floridi, L., Cows, J., Beltrametti, M., Chatila, R., Chazerand, P., Dignum, V. & Schafer, B. (2018). AI 4People-An Ethical Framework for a Good AI Society: Opportunities, Risks, Principles, and Recommendations. *Minds and Machines*, 28(4), 689-707.
- Gorden. R., Ji, P., Mulhail, P., Shaw, B., & Weissberg, R. P. (2011).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for Illinois Students: Policy, Practice and Progress. *Institute of Government and Public Affairs, The Illinois Report*, 68-83.
- Hyun, J., Choi, S. G., Cha, S. H., Ryu, D. Y., & Lee, H. K. (2009). A Study on the Current State of School Character Education. *Korea Education Development Institute Research Report*, 2009(9), 26-83.
- Jang, S. H. (2011). Strategies to Strengthen Character Education through Public Education. *Philosophy of Education*, 43, 193-222.
- Jeon, H. J. (2017). An exploratory study on the status and improvement directions of character education in higher education. *Research on Character Education*, 2(2), 25-43.
- Ji, H. A. (2017). A study on the direction of university character education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Research on Liberal Arts Education*, 11(6), 39-61.
- Jung, C. W., Son, K. W., Kim, N. J., Shin, H. C., & Han, H. M. (2013). Current status and activation plans for character education by school level. *Ministry of Education*, 2013 Policy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 Report. 1-235.
- Kim, E. J., & Kim, K. S. (2018). The effect of core competency-based character education on university students' interpersonal competency and global competency. *Journal of Vocational Ability Development*, 21(1), 55-88.
- Kim, S. J. (2015). *Analysis of major approaches and issues in character educ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24. 10. 1.). Personality Education Promotion Act. Retrieved 2024. 10. 1. from <https://url.kr/zw68tl>
- Kwon, H. H. (2005). A Study on the Transition of Moral Education Curriculum in the Elementary School. *The Korean Society for Moral & Ethics Education*, 7, 43-68.
- Lee, H. S. & Jeon, H. (2017). A Research on Operational Status of Non-Curriculum Program of Character Education in University.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7(23), 375-396.
- Lee, K. Y. (2021). Analysis of research trends on university character education published in domestic academic journals. *Research on Learner-Centered Curriculum Education*, 21(1), 1579-1599.
- Lee, M. J. (2017). The Meaning of Education in the Core Competencies and Practice Strategies of the Universities Participating in the ACE Project, *Asian Journal of Education*, 18(2), 339-364.
- Lee, S. J., & Kim, H. Y. (2017). Development of a character enhancement education model in the digital age. *Journal of Arts, Humanities, and Social Convergence Multimedia*, 7(9), 875-890.
- Lee, Y. S., & Kwon, M. J. (2015). A longitudinal analysis of the level of character in universities. *Ethical Education Research*, 36, 260.
- Seoul Women's University (2024). Academic Handbook for the 2024 Academic Year.
- Song, C. L. (2023). *An exploratory study on the applicability of the Korean character education system to Chinese university educ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ongshin University.
- Sungkyunkwan University (2024). Academic System Guide.
- Yoo, S. S. (2018). Methods and prospects of character education in the AI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Journal of Korean-Chinese Humanities Research*, 60, 34-46.
- 교육과학기술부 (2008).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Ⅰ) 총론, 재량활동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79호에 따른). 서울: 교육부. (Translated in English)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and Technology (2008). *Explanation of the Elementary School Curriculum (I): General Principles, Discretionary Activities*. (#2007-79). Seoul: Ministry of Education.
- 교육부 (1992a). 국민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1992-16호). 서울: 교육부. (Translated in English) Ministry of Education (1992a). *National School Curriculum*. (#1992-16). Seoul: Ministry of Education.
- 교육부 (1992b). 국민학교 교육과정 해설(Ⅰ) 총론. 국어, 수학 (교육부 고시 제1992-16호에 따

- 른). 서울: 교육부. (Translated in English) Ministry of Education (1992b). *Explanation of the National School Curriculum (I)-General Principles: Korean, Mathematics*. (#1992-16). Seoul: Ministry of Education.
- 교육부 (1997a).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별책 1]). 서울: 교육부. (Translated in English) Ministry of Education (1997a).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Curriculum: National Common Basic Curriculum* (#1997-15 [Annex 1]). Seoul: Ministry of Education.
- 교육부 (2014). 2014년도 인성교육 강화 기본계획. 세종: 교육부. (Translated in English) Ministry of Education (2014). *2014 Basic Plan for Strengthening Character Education*. Sejong: Ministry of Education.
- 교육부 (2016. 1. 19.).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 (2016~2020). 세종: 교육부. (Translated in English) Ministry of Education (2016. 1. 19). *Five-Year Comprehensive Plan for Character Education (2016~2020)*. Sejong: Ministry of Education.
- 교육부 (2020). 제2차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 (2021~2025). 세종: 교육부. (Translated in English) Ministry of Education (2020). *Second Five-Year Comprehensive Plan for Character Education (2021~2025)*. Sejong: Ministry of Education.
- 교육부 보도자료 (2013. 5. 9). 학교 교육 정상화로 행복한 학교 구현. 세종: 교육부. (Translated in English) Ministry of Education (2013. 5. 9.). *Implementing Happy Schools through the Normalization of School Education*. [Press Release]. Sejong: Ministry of Education.
- 김윤명 (2016). 인공지능과 리걸 프레임, 10가지 이슈,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Translated in English) Kim, Y. M. (2016). *AI and Legal Frame, 10 Issues*. Seoul: Commbooks.
- 김진규, 박형근, 은예린 (2020). 학교폭력 및 학생의 이해. 파주: 정민사. (Translated in English) Kim, J. G., Park, H. G., & Eun, Y. R. (2020). *Hick School Violence and Students' Understanding*, Paju: Jungminsa.
- 문교부 (1973). 국민학교 교육과정(문교부령 제310호, 1973. 2. 14). 서울: 교육부. (Translated in English) Ministry of Education (1973). *National School Curriculum*. (#310, 1973. 2. 14.). Seoul: Ministry of Education.
- 문교부 (1981). 국민학교 교육과정(문교부 고시 제442호 [별책 2]). 서울: 교육부. (Translated in English) Ministry of Education (1981). *National School Curriculum*. (#442 [Appendix 2]). Seoul: Ministry of Education.
- 문교부 (1987a). 국민학교 교육과정(문교부 고시 제87-9호). 서울: 교육부. (Translated in English) Ministry of Education (1987a). *National School Curriculum*. Ministry of Education Decree (#87-9). Seoul: Ministry of Education.

- 박명순, 이미진, 배성혜 (2019). *대학생을 위한 인성교육*. 서울: 학지사. (Translated in English)
- Park, M. S., Lee, M. J., & Bae, S. H. (2019). *Character Education for College Students: Character Education: With Our Life*. Seoul: Hakjisa.